



## 보도자료

제공일자	2019년 4월 30일
담당부서	여성가족팀
담당자	박영주 연구위원
전화	053.219.9972
e-mail	pyj78@dwff.or.kr

### 대구여성가족재단, 5월 가정의 달 맞아 가정폭력 예방교육 중점 실시

- 대구광역시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인 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 동안 학교 밖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성폭력·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무료로 지원되는 교육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가정폭력은 2016년 2,662건에서 2018년 1,709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재단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 구성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가능성과 예방법,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 한 폭력예방의식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가정폭력 교육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서 재단은 학교 밖 청소년 및 원아·초·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오랫동안 진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진행한다. 재단은 5월 한 달 동안 대구지역 초·중·고등학교의 학부모와 학교 밖 청소년 등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한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약 25시간의 교육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지속적으로 폭력예방교육이 필요한 단체에 교육을 지원한다. 폭력예방교육이 필요한 단체는 예방교육통합사이트 (<http://shp.mogef.go.kr>)를 통해 성폭력, 가정폭력 교육을 신청하면, 재

단에서는 대상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 각종 교육물품을 지원하여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대구여성가족재단 정일선 대표는 “교육의 사각지대에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폭력예방인식을 강화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사회의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여성가족재단(대표 정일선)은 대구광역시 2012년 6월 5일 설립한 여성가족정책 전문기관입니다. 여성가족정책의 Think-tank로서, 지역여성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이 모이고 나누고 소통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